

청렴 사회 좋지만...애먼 농어민은 '시름'

/리뷰 2016/ ③ 김영란법 시행

접대·금품수수·청탁...폐습 개선 기대

농수축산물 규제 대상 포함...시장 위축

"명절 때는 한시적 예외" 개선 목소리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은 공무원, 기업인뿐 아니라 온 국민의 일상에 변화를 몰고 왔다.

청탁금지법이 이른바 '갑을' 관계에서 비롯된 고질적인 접대문화, 촌지로 대표되는 금품수수 관행, 친분관계를 이용한 청탁문화 등 뿌리 깊은 폐습을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우리 사회가 보다 투명해질 것이라 기대가 커졌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을 대상으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의 상

한선을 두면서 고급 술집이나 일식·한정식집, 골프장 등에서는 기업체 직원, 공무원들을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그러나 김영란법은 포괄적이고 다양한 규제 때문에 아직까지 혼선이 계속되는 등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 고유 품종으로 여겨지는 명절 선물용 농수축산물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농수축산업계가 크게 위축되면서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김영란법 관련 태스크포스까지 구성해 미비점 보완에 나섰지만 농어민들은 마땅한 해결책을 아직 찾지 못해 고사 직전에 내몰린 상황이라고 하소연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최근 설·추석에 농수축산물을 규제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실연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관련 업계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부터 규제 대상에 농수축산물을 포함하지 말 것을 요구했던 만큼 근본적으로 이에 해당 품목을 제외해야 한다는 바람이다.

이에 따라 명절을 앞두고 일정 기간 선물 5만원의 제한

을 받지 않도록 하는 한시 예외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한우나 굴비, 전복, 인삼 등 김영란법의 직격탄을 맞아 매출이 급감한 농수축산물 소비가 다소나마 되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청탁금지법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국민을 움츠러들게 한다', '인정을 메마르게 한다'는 자조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만큼 이를 해소해 이른 시간내에 정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아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세대 변화는 빨랐고 그 범위 역시 넓었다. 우선 관가(官家)를 중심으로 더치페이(각자 내기) 문화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첫 케이스에 적발돼선 안 된다는 위기감에서 모임을 자제하는 등 공직사회에서 시작된 변화의 바람은 사회 전반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행정기관, 대학병원 등에서는 "범이 시행되면서 그간 부담스러웠던 '부탁'이 거의 사라졌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전남대 5·18 민주공원 준공

'5·18 민주공원' 준공식 및 상징조형물 제막식이 20일 오전 전남대 정문 앞에서 지방문 총장과 윤장현 광주시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사건〉**

5·18 민주공원은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4·19혁명, 6·3항쟁 등 한국 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겼던 전남대의 민족·민주화 운동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5·18광주민주화운동 사적 제1호인 전남대 정문 주변을 확장·재정비하고 기념조형물을 설치하는 등 기존 5·18소공원과 연계해 이뤄졌다.

정문 서측(전대시대부중 쪽)은 민주화운동 기념마당과 민주정의 길 등으로 꾸며졌고 민주·인권·평화의 가치가 꽃피는 순간을 형상화한 박정호 작가의 '피어나다'라는 상징조형물을 설치했다.

동측(북구정 쪽)에는 오일길과 안내관 등을 정비해 5·18 항쟁 진원지로서의 기념공간 기능을 보완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운전면허시험...경사로·T자 코스 부활 내일 전면 시행

운전면허 시험 '장내기능시험' 새 제도 시행

장내기능시험 개선 내용

- 1. T자 코스
- 2. 경사로
- 3. 과속구간
- 4. 직각주차
- 5. 도회
- 6. 운전자 조작

현행

- 평가항목 2개, 합격률 92.8%
- 운전면허 조작 2, 차로교수-급정지

개선안

- 평가항목 7개(현행+5개), 합격률 80%(실차시험 결과)
- 1. 경사로 2. 과·우회전 3. 신호교차로 4. 직각주차(차 코스) 5. 과속코스

자료/연합뉴스

경사로와 'T자 코스'를 부활시키는 등 전보다 한층 어려워진 운전면허시험 제도가 22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면허시험장·운전학원 시설공사 등 관련 준비를 마치고 새 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은행 문항 수는 기존 730문항에서 1000문항으로 대폭 늘어난다. 여기에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난폭·보복운전, 보행자 보호, 긴급자동차 양보 등 개정된 법령 관련 내용이 추가된다.

장내 기능시험은 한층 어려워졌다. 과거 기능시험에서 대표적 난코스였던 경사로와 직각주차(T자 코스)를 비롯해 좌·우회전, 신호교차로, 과속 코스를 추가해 평가항목이 현행 2개에서 7개로 늘었다.

실적 기준도 종전에는 '안전미착용'과 '사고 야기' 2개 항목이었으나 여기에 '음주·약물운전', '30초 이내 미출발', '시원코스 누락', '경사로 정지 후 30초 내 미통과 또는 뒤로 1m 이상 밀릴 때', '신호위반' 5개가 추가됐다. /연합뉴스

기능시험 전체 주행거리는 50m에서 300m로 늘어난다. 2011년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조치 시행 이전(700m)보다는 짧지만 종전의 6배 거리다. 경찰 시험 결과 새 제도하에서 기능시험 합격률은 92.8%에서 80%로 낮아졌다.

도로주행시험은 차량 성능 개선 등 달라진 교통환경을 반영해 채점항목을 87개에서 57개로 줄였다. 그러나 배점 기준이 종전 3·5·10점에서 5·7·10점으로 바뀌어 감점 폭이 커진 터라 난도가 낮아졌다고 보고는 어렵다.

특히 방향지시등(깜빡이) 조작 점수를 3점에서 7점으로 높이는 등 배점 기준이 전반적으로 상향됐고, 5회 이상 엔진을 꺼뜨리면 실격시키던 것을 3회 이상으로 하는 등 실격기준도 강화했다. 운전전문학원에서 받는 의무교육은 학과의 경우 3시간으로 줄고, 장내기능은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어난다. 도로주행은 지금과 같은 6시간이다.

경찰은 면허시험 간소화 이후 '물면허'로 불릴 만큼 운전면허를 따기가 쉬워 사고 위험이 커졌다는 지적이 일자 검토를 거쳐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신규 취득자 사고 건수는 간소화 3년 전인 2008년 1만명당 99.18건에서 3년 후인 2014년 63.2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연합뉴스

광주시 "자치구에 권한 주겠다"

27일 분권 토론회

광주시가 분권주의에 입각해 자치구와의 합리적인 권한 나누기에 나섰다. 지금까지는 광역자치체들이 중앙정부에 권한 이양을 요구하는 경우는 많았지만, 광역시가 자치구에 권한을 주겠다고 나선 것은 드물어 결과가 주목된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20일 "자치구 권한 이양 등 광역시와 자치구간 분권 업무를 논의해야 한다"며 전문가 TF 구성을 지시했다.

윤 시장은 이날 시청 확대간부회의에서 "시가 기득권을 놓지 않고 자치구를 통해했거나 정당하게 줘야 할 권한을 배분하지 않았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시와 연구원, 대학교수 등 전문가 등과 TF를 만들어 가능한 것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광역시도 오는 27일 시청에서 광역시·자치구 분권 토론회를 열고 관련 분야의 의견을 수렴한다.

토론회에는 광주전남연구원의 김대성 연구원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연구원 등이 발제자로 나서 자치구 권한 이양 방안을 제시한다.

시는 토론회에서 나온 과제 등을 토대로 자치구별로 자치분권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F도 조직해 자치구 권한 이양 작업을 구체화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아직 논의해야 할 과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하는 단계"라며 "연말까지 답론을 정하고 내년에 구체적인 과제를 선정해 자치구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암 5년 생존율 70% 돌파...불치병 옛말

2014년 암등록통계자료

전립선암 등 생존율 높아

'암이 불치병'이란 말은 이제 옛말이었다. 암에 걸려도 5년 이상 살 확률이 해가 갈수록 올라가고 있다. 의학기술의 발전과 조기 검진에 따른 조기 치료로 암을 고치는 경우가 늘고 있어서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가 20일 내놓은 2014년 암등록통계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2010~2014년) 발생한 암 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70.3%로 처음으로 70% 선을 돌파했다. 암 환자 3명 중 2명 이상이 5년 이상 생존한다는 말이다.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고자 다른 암에 견줘 5년 상대생존율이 100%를 넘는 갑상선암을 제외해도 암 환자의 최근 5년 상대생존율(2010~2014년)은 63.1%에 달했다.

5년 상대생존율은 암 발생자가 교통사고나 심·뇌혈관 질환 등 암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할 가능성을 보정해서 추정된 5년 이상 생존 확률로, 암 환자의 5년 관찰생존율을 일반인구의 5년 기대생존율로 나눈 계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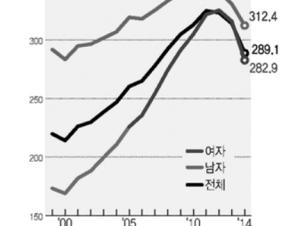
5년 상대생존율은 해마다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1993~1995년 41.2%에서 2001~2005년 53.9%, 2006~2010년 65.0%, 2008~2012년 68.1%, 2009~2013년 69.4% 등으로 향상됐다.

2010~2014년 구체적인 암 종류별로는 갑상선암의 5년 상대생존율이 100.2%로 가장 높았고, 전립선암(93.3%), 유방암(92.0%) 등이 비교적 높은 생존율을 보였다.

이에 반해 간암(32.8%), 폐암(25.1%),

2014년 암등록통계 주요내용

▶ 암 발생률(인구 10만명당 신규 암 환자 수)



*연령표준화발생률: 2000년 주민등록인구조사 자료, 표준인구조사 사용

▶ 2014년 주요 암종 발생자수



단위: 명

췌장암(10.1%)은 상대적으로 생존율이 낮았다. 2001~2005년과 비교하면 위암 74.4%(16.7%p), 전립선암 93.3%(13.0%p), 간암 32.8%(12.6%p), 대장암 76.3%(9.7%p), 폐암 25.1%(8.9%p) 등의 상대생존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의 5년 생존율이 78.2%로 남자의 62.2%를 웃돌았다. 생존율이 높은 갑상선암과 유방암이 여성에게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등록번호: 전남-목포-국제-2013-001

국제결혼 초혼 재혼

베트남,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주의 사항

국제결혼 계약서 반드시 시청, 여성가족부 국제결혼 담당자에게 필히 등록사항을 확인하고 계약하십시오. ※ 무등록자는 피해발생시 법적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 주의바랍니다.

국제결혼 사고피해대비

① 5,000만원 보증보험 가입업체
② 자본금 보유기준 1억원이상 시정에 신고업체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담문의 061)247-7700
062)372-9777

※ 광주·전남·전북 지역 출장상담 가능합니다.

미수금 회수대행 - 못받은 돈 -

▶ 채권 추심(회수) 전문

- 민사 채권: 판결문, 공증 외
- 상사 채권: 물품/공사/용역/매매대금, 장비대여 대금, 상가보증금 외

▶ 채무자(개인·법인) 재산 및 신용조사 (부동산, 차량, 중기, 거래은행, 신용상태 등)

▶ 연락두절 채무자 및 실거주지 파악

▶ 차용증, 각서, 은행입금내역, 계약서, 거래장부 등 모든 채권에 대한 명쾌한 상담 가능!

채권 추심 경력 20년 노하우

새한신용정보(주) (금감위 허가업체)
010-8607-1122 (전남대 법대출업)
(062) 513-4307

정직·성실, 최선을 다해 회수해 드립니다

혈당조질

혈당이 왜 안떨어질까요?

코디셉스골드 대한민국 특허 제0522532호

대한민국 당뇨특허 2건 등록!

코디셉스골드는 세포에서 인체 에너지(기력)를 10배준다는 뜻으로 포도당 연소를 통해 발생하며 혈관 속의 넘쳐나는 포도당을 60초 개의 세포 속으로 이동시켜 에너지를 만들면서 당뇨인의 자전 세포에 활력을 주고 자연스럽게 정상 혈당으로 되는 것입니다.

NAVER 백세생활건강 - 검색

※ 이번 신제품을 구매하신 모든분께 신제품 출시 기념으로 삼백배(홍나무뿌리) 감칠맛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책자, 자료 무료송부

010-3598-7080

2017학년도 광주국제기독교학교 신입생 추가모집

광주국제기독교학교(GICCS)는 크리스천 특목학교로서 영성·영어·자율의 정신에 기초하여 올바른 신앙을 바탕으로 유학의 꿈을 지닌 학생들을 교육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학교에서는 미국의 크리스천 사립학교, 칼리지와 자매 결연을 통해 학생들 개개인 수준에 맞는 교육과정과 입학 공동체 교육을 통해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주님의 일꾼을 양육하고자 합니다.

▶ 설립자 이 환 수 박사
▶ 서중, 광주이고 출신
▶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 졸업
▶ 전. 텍사스 한인회 회장
▶ 현. 텍사스 ChemLoo lab 회장

1. 교육과정

- 미국 고교 편입 및 입학
- 미국 칼리지 편입 및 입학
- 미국 4년제 대학 편입
- 국제반 - 초등 중등 과정(유학)
- 미국 현지 실시한 화상영어 과정
- 국제반 - 초등 중등 과정(국내대학)
- English Summer Camp
- 미국 텍사스 탐방 캠프
- 국제반 - 고등과정 (유학)
- 국내반 - 고등과정 (국내대학)
- 미국 대학 진학과정 (유학)

2. 특 전

- 크리스천 우대
- 소수정원제 수업
- 최상의 기숙사 환경
- 미국학교 입학까지 미국 현지 본교(GICCS)
- 담당자의 지속적 학사관리
- 다수의 미국 현지 고교, 대학들과 최선의 교육 인프라를 통하여 미국 고교 편입과 미국 4년제 대학에 편입하게 됩니다.

3. 신입생 추가모집 및 입학설명회

▶ 대상

- 국내 중·고교 대학 진학을 원하지 않는 학생
- 국내대학 조기 입학을 원하는 학생
- 미국고교 및 대학 진학을 원하는 학생

▶ 모집과정 및 인원

- 국제반 0명 초등 중등과정(유학)
- 국내반 00명 초등 중등과정(국내대학)
- 국제반 0명 고등과정(유학)
- 국내반 00명 고등과정(국내대학)
- 일시: 2017.1.5(목) ~ 2017.1.16(월)
- 오전 11:00시 ~ 12:00시

4. 특별전형 (장학생 선발)

- 대상: 초·중·고
- 1차 전형: 영어·수학
- 2차 전형: 학교장 면접
- 제출서류: 자기소개서·생활기록부
- 전형일시: 2017.1.9(월) 오전 11시
- 합격자 발표: 2017.1.16(월) 오전 11시
- ※ 단, 기숙사비용은 장학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5.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국제기독교학교 홈페이지 참조 (www.giccs.com)
- 광주국제기독교학교 입학 담당자 Tel: 061-381-0000
- 전남 담양군 무정면 중리 도동길 42-34 (성도리 산 72) Tel: 061-381-1365

www.giccs.com
광주국제기독교학교
THE LAST DAY IS THE BEST TIME